

USMCA 공동검토, 자동차·부품 분야 동향

기술정책실
윤선호 선임연구원

KATECH Insight

- ◆ 미국-멕시코-캐나다가 3자간 무역 협정인 USMCA 연장 결정을 위해 ‘공동검토’를 앞둔 가운데,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·개정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
- ◆ 기존 협정 연장, 미국의 협정 탈퇴, 검토 지연, 협정 개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원산지규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 및 공급망 DB 관리가 중요

» 미국-멕시코-캐나다는 ‘26.7.1일 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‘공동검토’ 진행 예정

- 3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계기로 ‘17년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를 재협상하고, 이후 ‘일몰조항’ 등을 포함한 USMCA를 ‘20.7월 발효하며 북미 통상체제를 재편
 - USMCA(U.S.-Mexico-Canada Agreement)는 ‘20.7월 발효된 미국-캐나다-멕시코 간 무역협정으로 기존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를 대체
 - USMCA의 일몰조항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해 만료 시 자동 종료되도록 하고, 6년마다 운영·쟁점 분야에 대한 공동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
- USMCA는 NAFTA 대비 자동차 등의 원산지규정을 강화하였으며, 핵심은 ①역내부가가치(RVC) 비율 단계적 상향(62.5→75%), ②노동부가가치(LVC) 및 ③철강·알루미늄 역내산 비율 요건 신설
 - * ①~③ 등이 동시 충족되어야 무관세 적용 가능하며, 미 충족 시 WTO 최혜국 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 적용

Ⅰ 現 USMCA 승용차 원산지규정 기준 (출처: KOTRA) Ⅰ

구분	‘20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	‘26년
① 역내부가가치	66%	69%	72%			75%	
② 노동부가가치	30%	33%	36%			40%	
③ 철강/알루미늄 역내산 비율	70%						

* 역내부가가치(RVC): 역외국 상품이(원자재/부품) 역내로 수입된 후 역내에서 교역되거나 역내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적용
 ** 노동부가가치(LVC):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하도록 요구
 *** 철강/알루미늄 기준: 자동차 생산자의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량을 기준으로 역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

- 협정 당사국의 권고안 관련 세부 절차는 각국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, 3국이 ‘26.7.1일 공동검토 1개월 전까지 자유무역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검토가 진행됨
 - USMC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3국 모두의 연장 의사 확인 시 협정 기한은 공동검토 시점으로부터 16년(‘42년까지) 연장되며,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‘36년 만료 시점까지 매년 공동검토 진행
 - 미국은 USMCA 이행법에 따라 ①무역대표부(USTR)가 공동검토 협정 운영·준수 등과 관련된 공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진행 → ②공동검토에 대해 美 의회 보고 → ③자유무역위원회에 권고안 제출

I 미국의 USMCA 공동검토 진행 방식 I

구분	단계						
	美 무역대표부					자유무역위원회	美 무역대표부
업무	일반 의견수렴 연방관보 공고	공청회 개최	자동차부품무역 운영 의견수렴	의회보고	권고안 제출	검토 및 결정	의회브리핑
법적기간	공동검토 270일 전	-	2년마다 검토	공동검토 180일 전	공동검토 30일 전	'26.7.1.	공동검토 후 20일 이내
실수행	'25.9.17~11.3	'25.12.3~5	'25.12.5~26.1.7	'25.12.16~17	-	-	-

※ 자료원: USTR 연방관보, USMCA 이행법

» 이번 공동검토의 자동차 분야 쟁점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 개정

- 완성차·부품업체, 원자재 관련 협회 등이 의견수렴 기간에 USMCA 연장 지지를 표명하였으나, 동시에 USMCA 국가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는 협정 개선 방향을 제시

* 무역대표부는 일반 공개 의견수렴에서 1,514건, 자동차·부품 무역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에서 53건의 의견 접수

- 완성차·부품 업체는 既 구축된 공급망 변경 부담으로 USMCA 유지를 선호하나, ①국가간 서류·요건 통일성 개선, ②크레딧 제도 도입, ③원산지규정 변경 시 전환기간 제공 등의 의견 제시
- 원자재 업계(철강·알루미늄)는 ①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롤업(Roll-Up)* 규정 폐지, ②산정방식 강화, ③노동부가가치 적용범위 확대 및 물가상승을 반영 등 타 업계 대비 원산지기준 강화 의견이 다수

* 핵심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, 그 핵심부품 내에 포함된 역외산 재료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

I USMCA 공동검토 관련 자동차·부품 및 원자재 업계(철강·알루미늄)의 주요 의견 I

구분	주요 의견	
완성차·부품 업계	복수업체 원산지규정 변경시 업계의견 반영 및 전환기간 제공, Ford 크레딧제도 도입, Honda 원산지규정 서류/요건의 통일성 개선	
원 자 재 업 계	미국 철강업계무역협회 (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)	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(85%), 롤업 규정 폐지, 용융/주조요건 즉시 시행 (기존 '27.7월 시행), USMCA 비회원국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
	캐나다 알루미늄협회 (Aluminium Association of Canada)	알루미늄 제련 및 주조 원산지 데이터와 물량 기반 접근방식 (기존 가치기반 대체)을 적용하여 원산지규정 강화
	미국 알루미늄 압출산업 협회 (Aluminum Extruders Council)	노동부가가치 요건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제품 범위 확대 및 최저임금 (현 \$16)에 물가상승률 매년 적용

※ 자료원: 기업별 공개 의견

-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USMCA 원산지규정 개정 추진 의사가 뚜렷

* 무역대표부는 “USMCA 승인은 양자 및 삼자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.”는 견해와 함께 논의 주제를 제시('25.12월)

- 무역대표부의 세부 견해는 비공개이나, 공동검토 관련 미 의회 보고서에 ①양국문제(국가안보관세), ②USMCA 파트너간 무관세 무역규정(원산지규정)의 개정 등이 잠재적 주제로 명시

* 양국문제는 중국 자동차 부품기업이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경로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,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에 대한 관세 범위/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'25년부터 요청

- 무관세 무역규칙은 USMCA 국가내에서 자동차·부품을 수출입시 필요한 규정으로, 이전에 해석차이로 분쟁이 있었던 만큼 당시 미국의 해석내용을 이번 USMCA 공동검토 주제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음

* 핵심부품을 역내산으로 판정받으면, 그 가치를 완성차 역내부가가치 계산에서 100% 역내산으로 '롤업'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분쟁(당시 USMCA 패널은 미국의 규정 해석이 의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)

» ①협정 연장, ②탈퇴, ③검토 지연, ④협정 개정이 가능 시나리오이나, 불확실성이 높음

①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협정이 미국에 무의미하다고 언급('25.12월)하여 '단순 연장' 가능성은 낮으나, ② '탈퇴' 역시 행정부-의회 간 권한 갈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제한적

- 만약 IEPPA(국제경제비상권한법) 기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연방 대법원판결 결과나 여론 악화에 따라 기존 협정이 연장될 경우, 현재의 USMCA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
- USMCA는 국제협정이지만 미국 의회가 'USMCA 이행법'을 통해 승인한 것이고, 의회가 관련 권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탈퇴를 위해서는 의회-행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- * 美 의회의 USMCA 검토 보고서('26.1월)에 따르면 USMCA는 미국의 첫 번째 공동검토 대상 자유무역협정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검토범위 및 절차가 불분명하다고 평가

③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/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이한 행보를 보여, USMCA 공동검토가 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

- 캐나다와 멕시코가 역외산 부품 완성차 수입에 있어 독자 정책 노선을 고수하여 미국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, 기존 협정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지만 '27년부터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가 진행됨
- * (캐나다) '24년부터 미국과 동일하게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해왔던 100% 관세를 '26.1월 중국과의 합의 이후 일정 쿼터(49,000대/年) 내 6.1%로 낮추기로 결정
- * (멕시코) FTA 미체결국(중국, 한국 등)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('26.1월)
-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USMCA 효력은 유지되더라도 매년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원재료-부품-완성차로 이어지는 원산지/소유구조 증빙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

④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유사하게 미국 의사를 반영한 USMCA 협정 개정 가능성도 높음

- 미국은 3국 중 최대 시장이자 캐나다-멕시코의 부품-완성차 최대 수출국으로 협상에서 구조적 우위 보유
- 미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 경우, 미국 시장에 진입한 주요 완성차 기업의 현지 생산량 및 미국/캐나다산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

» 원산지규정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 및 공급망 D/B 구축·관리의 중요성 증가

• 룰업 규정 폐지,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, 용융/주조요건 즉시 시행, 노동부가가치 상향 등이 지금까지 수렴된 주요 의견으로,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및 대비 필요

- 특히 룰업 규정은 과거 미국과 캐나다-멕시코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대부분의 원자재 기업들이 해당 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만큼, 폐지 시나리오에 대비 필요
- 노동부가가치 요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향 시나리오에 대비한 노동부가가치 재산정, 노동부가가치 요건 변화 시 저임금 조립-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평가 등도 요구됨

• 원산지규정 기준 강화 시 원산지·공정·소유구조 증빙, 대체 가능성, 전환 시점 정보 요구에 대응해야 하므로, 공급망 DB 구축·관리의 중요성도 증가

- 예컨대 철강 역내산비율 상향과 용융/주조요건이 합쳐질 경우 RVC 충족에 있어 북미 생산 철강을 사용한 부품 제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, 관련 공급망 정보의 중요성도 증가할 전망
- 또한 원산지·공정·소유구조 증빙과 관련하여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·구매하는 부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공급망 정보에 대한 재검토 및 상세 정보 보완도 필요

Ⅰ 참고: USMCA 공동검토 관련 원자재(철강·알루미늄) 및 자동차·부품 업계의 상세 의견 Ⅰ

구분	항목	기관명	주요 의견
원자재	원산지	ACC	- 알루미늄도 체련/주조데이터 적용, 가치 기반이 아닌 물량 기반 접근방식 적용
		SMA	-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(85%) 및 용융 및 주조요건 즉시 시행
		US Steel 외	- RVC 계산 시 롤업 적용 금지
		AEC	- LVC 요건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제품 확대 및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매년 적용
	기타	AAC	- 미국-캐나다 통합 관리방식 검토
		SMA	- 완성차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(MFN) 관세 인상
		AISI	- 멕시코의 특정 제도(IMMEX, PROSEC)를 통한 관세 우회 방지
		NADCA	-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감시체계 강화
완성차	원산지	Tesla	- 멕시코의 집행 및 감사에 대한 투명성 및 동일 심사기준 적용
		Honda	- 원산지규정 관련 서류, 인증요건의 명확화 및 통일성 개선
		GM 외	- 원산지 기준 강화 또는 기준 변경시 업계 의견반영 및 전환 기간 제공
		Ford	- 기준요건 이상으로 철강/알루미늄 조달시 자동차원산지 크레딧 제공 -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를 美·加·墨 외 국가에 판매시 크레딧 제공
		ZETA	- 전기차, 첨단자동차 등을 고려한 자동차 원산지 핵심부품 목록 최신화
	기타	현대차	- 배터리, SDV, 첨단자동차 분야 3국 공동 기술인증 프로그램과 표준 통합 W/G 설립 - 북미 자동차 공급망 DB 구축
		Tesla	- NACS를 북미 경량차량 무역 단일표준으로 채택하고 다른 표준 개발·사용 중단
		VW	- 제232조 자동차관세는 트럼프1기 USMCA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폐지
		Stellantis	- 한/일/EU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면 USMCA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거나 자동차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멕시코·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철폐(인하)
부품	원산지	Kawasaki	- 오프로드 차량에도 RVC 상향 적용
		Metalsa 외	- 기준강화 또는 자격과 관련된 내용 변경시 전환기간 제공
		LKQ	- 적법한 회수 작업의 경우 분해를 생산으로 인정 - 재제조 부품의 역내부가가치 계산 간소화
	기타	IFI	- 패스너 제품을 자동차 및 트럭 부품으로 반영
		Int'l Motors	- 재사용을 위한 '20년도 이전 제조 차량의 USMCA 충족여부 검토
		BMTC	- USMCA 지역 내 중국 소유(통제) 시설의 자재에 대해 美·加·墨 공통으로 고관세, 투자 금지조치 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
기타	원산지	CPAC	- 원산지규정 관련 서류, 인증요건의 명확화 및 통일성 개선
	기타	CAR	- 2/3차 협력업체의 규정준수 및 문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

※ 자료원: 기업별 공개 의견

*본 원고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